

5. 야마토 왕국의 시조 호무다 340-369

(1) 야마토 왕국의 시조에 관한 기록

고사기는 상권, 중권, 하권으로 나누어, 야마토 왕국의 역사라는 것을 기록했다. 상권은 신들의 시대(신대)라 하여, 건국의 과정을 신화로 처리했다. “해의 여신(일신)” 야마테라스와 그녀의 손자 니니기의 지상 왕국 건설 이야기가 그 핵심이 된다. 중권에서부터는 인간들의 시대(인대)가 시작된다. 야마토 왕국의 시조라는 진무(이하레)로부터 시작해서, 15대 왕이라고 하는 오오진(호무다) 까지를 기록한다는 것이다. 하권은 오오진 이후 스이코 여왕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712년에 완성된 이 고사기는, 전통적인 사서 형식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고 기록을 했다. 그 후 720년에 편찬이 완료된 일본서기는, 겐메이(707-715년), 겐쇼오(715-724년) 두 여왕의 치세 기간 중 8년이라는 시간을 추가로 투입해서, 고사기의 핵심 줄거리에 좀더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중국 왕조의 정사에 가까운 형식을 취하여, 편년체로 기록을 한 것이다.

겐쇼오의 모친인 겐메이 여왕은 텐지왕(669-671년)의 딸로, 텐무왕(672-686년)의 조카인 동시에 며느리 이었다. 텐무가 새로운 역사의 뼈대를 만들고, 겐메이-겐쇼오 모녀가, 관찬 정사(官撰正史)의 모양을 완성시켰다. 형식이야 어떻든지, 고사기와 일본서기는 모두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편찬이 된 것이다.

고사기 중권, 인간들의 시대 첫머리에 등장하는 이하레라고 부르는 야마토 왕국의 시조는, 후에 진무라는 중국식의 시호가 부여되었다. 마찬가지로, 고사기 중권의 끝 부분에서 (15대 임금으로) 등장하는 호무다라고 부르는 왕은, 오오진이라는 중국식 시호가 부여되었다.

이 중국식(漢風) 시호들은, 코오닌(770-781년)과 칸무(781-806년)의 재위기간 중에, 오우미 미후네(淡海三船: 722-785년)라는 학자가 지어 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일본서기가 편찬 완료된 때로부터 60여년이 지난, 8세기 말에 새삼스럽게 만들어진 명칭들이었다. 현대 일본 사회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중국식 시호들을 사용한다. 전문가를 제외하고,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나타나는 “이하레” 같은 일본식(和風) 시호라든가, “호무다” 같은 왕의 실명(實名)을 아는 일본 사람은 요즘 거의 없다.

나는 건국 시조로부터 오호하쓰세(雄略) 재위 기간까지(제1부)만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원본에서 나타나는 (왕자 때에도 실명같이 사용이 되던) 일본식 시호를 사용하고, 그 이후(제2부)부터는 현대 일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중국식 시호만을 사용한다. 아주 거창하게 들리는 천황이라는 호칭은, 원래 스메라미코토 라고 읽었으나, 후세에 모두 텐노오(天王,텐와야)라고 읽게 되었다.

고사기 상권의 신대 기록을 보면, 천지창조 직후 최초로 나타난 5명의 신들 가운데, 타카기(타카미무스히) 라는 1세대 신(別天神)이 있다. 또 최초의 신들로부터 차례로 그 순서를 세어보면 7세대 신들에 해당한다는 이자나키 와 이자나미 남녀가 등장한다. 이들이 부부가 되어 세 명의 귀한 자식들을 낳는데, 그 중 맏이가 아마테라스라는 딸이다. 그런데 2세대라고 볼 수 있는 타카기의 딸과 8세대라고 볼 수 있는 “해의 신(日神)” 아마테라스의 아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신대에서의 건국시조인 니니기 이다.

상권 끝 부분에서는, 니니기의 손자가 바다 속에 사는 해신의 딸과 결혼을 해서, 인간들의 시대에 야마토 왕국의 시조로 등장하는 이하레(진무)를 낳는다. 이 얘기를 끝으로, 고사기는 신들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사람들의 시대인 중권으로 넘어간다.

고사기 중권은, 건국시조 이하레(진무)가 야마토 왕국을 창건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한다. 그런데 중권 끝 부분의 기록에 의하면, 신공 왕후라는 가공의 존재가 신라를 정벌하기 위해 한국으로 출정을 한다. 고사기 편찬자들은, 이

神代上...伊奘諾尊伊奘冉尊 共曰... 共生日神 號大日靈貴 大日靈貴 此云 ... 一書云 天照大神 ... 次生月神 ... 次生素戔鳴尊 ... 上87

神代上 ... 伊奘諾尊與伊奘冉尊 ... 因以生神 號曰天照大神... 因以生神 號曰月讀尊 ... 因以生神 號曰素戔鳴尊 上91,95,97

天地初發之時 於高天原成神名天之御中主神 訓高下天云阿麻 下效此次高御產巢日神 次神產巢日神 此三柱神者...此二柱神亦...上件五柱神者 別天神 古50 是高木神者 高御產巢日神之別名 古114

次成神名 國之常立神 ... 次伊邪那伎神 次妹伊邪那美神 上件自國之常立神 以下 伊邪那美神以前 并稱神世七代 古50-52 此時伊邪那伎命 大歡喜詔 吾者生生子而 於生終得三貴子...取由良迦志而 賜天照大御神而詔之 汝命者 所知高天原矣 事依而賜也...次詔月讀命 汝命者 所知夜之食國矣 事依也 訓食云袁須次詔建速須佐之男命 須佐二字以音 汝命者 所知海原矣 事依也 古70-72

爾天照大御神 高木神之命以 詔太子...爾其太子...白 僕者將降裝束之間 子生出 名...天津日高日子番能邇邇藝命 此子應降也 此御子者 御合高木神之女...生子 天火明命 次日子番能邇邇藝命也 是以隨白之科 詔日子番能邇邇藝命 此豐葦原水穗國者汝將知國 言依賜 故 隨命以可天降 古124-126

於是天津日高日子番能邇邇藝命

於笠沙御前 遇麗美人...一宿爲婚...
 一宿哉妊... 所生之子名 火照命 ...
 次生子御名 火遠理命 亦名天津日
 高日子穗穗手見命... 爾火遠理命...
 爾豐玉毘賣命...目合而 ...故至三年
 住其國 古130-138 ...是海神之女 豐
 玉毘賣命...今臨產時 此念 天神之
 御子 不可生海原 故參出到也 ...
 是以名其所產之御子 謂天津日高日
 子波限建鵜葺草葺不合命 ...訓波限
 云那藝佐...娶其姨 玉依毘賣命 生
 御子名 五瀨命 次稻水命 次御毛沼
 命 次若御毛沼命...亦名神倭伊波禮
 毘古命 古142-146

一書曰 先生 彥五瀨命 次 磐余彦
 火出見尊 上187

帶中日子天皇... 又娶息長帶比賣命
 生御子 品夜和氣命 次大鞆和氣命
 亦名品陀和氣命 古 226

爾以其御杖 衝立新羅國主之門 ...
 其政未竟之間 其懷妊產 卽爲鎮御
 腹 取石以纏於裳之腰而 渡筑紫國
 其御子阿禮坐 阿禮二字以音 古232

議議安河而平天下 論小濱而清國土
 是以 番仁岐命 初降于高千嶺 神倭
 天皇 經歷于秋津嶋 ... 定境開邦
 制于近淡海 正姓撰氏 勒于遠飛鳥
 古42

신공왕후 신라정벌이라는 이야기를, 마치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듯, 동화 형식으로 처리했다. 덕분에 일본의 초급 역사 교과서들이 즐겨 소개하는 이야기 거리가 되었었다.

한국 땅에서 신라를 정벌하는 도중, 신공왕후는 출산 날을 맞게 된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고사기 편찬자들은 그녀의 아기가 반드시 일본 땅에서 태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고사기에 의하면, 신공왕후는 한국 땅에서 아기가 태어나지 않도록, 출산을 지연시키는 응급조치를 하고, 큐우슈우로 건너온 직후에 드디어 아기를 낳는다. 소위 신공왕후 섭정 원년의 바로 전해에 낳았다는 이 아이가 호무다(오오진) 왕인 것이다. 고사기는 호무다 왕의 서거로 중권 기록을 마무리하고, 그의 아들 오호사자키(닌토쿠) 왕부터는 하권에서 기록을 한다.

나는 고사기 상권의 신대에서 등장하는 “니니기”와, 중권의 처음과 끝 부분에서 등장하는 “이하레(진무)”와 “호무다(오오진)”, 이 세 개의 존재가 바로 야마토 왕국의 시조 한사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가정1]. 이것이, 야마토 왜의 기원에 대한 내 이론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가정이 되는 것이다. 즉 고사기의 상권과 중권은 모두 야마토 왕국의 창건자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나 혼자만 이렇게 믿는 것은 아니다. 야마토 왕국의 시조에 관한, 상당수의 일본 역사학자들도 이와 같은 가정을 아주 지극히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고사기 서문의 한 구절은, 니니기가 처음 타카치호 산봉우리에 내려왔다는 말을 하고는 곧바로 이어서, 이하레(진무)가 아키즈 섬을 경유해 동쪽을 향한 정벌의 길에 나선다고 기록을 했다. 이 구절은, 니니기와 이하레가 동일 존재라는 것을, 고사기 스스로가 독자들에게 강하게 암시를 해 주고 있는 것이다.

나는 “니니기-진무-오오진”이라는 복합 인격이, “호무다”라는 야마토 왕국의 시조 한 명을 의미한다는 핵심 가정에서 출발해서, 야마토 왕국은 백제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와 세운 것이고, 그 시조는 백제 왕족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애매모호한 에가미의 기마민족설을 좀더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즉, 에가미가 말하는 기마민족이 바로 백제 사람들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다. 1988년과 1994년에 출판된 내 저서들은 모두 이 주장의 합리성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제부터 나는, 지금까지 주장해 온 내 학설의 틀 속에서 고사기와 일본서기를 거듭 읽어보면서, 가장 사실에 가깝다고 믿어지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다.

(2) 백제의 왕손인 야마토 왕국의 시조

나는 제일 먼저, 야마토 왕국의 시조라는 “니니기-진무-오오진”이 (즉 호무다가) 도대체 백제 왕실의 누구였을까 추정을 해 보려 한다.

여기서 백제 왕실의 계통을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개루왕은 백제의 4대 임금이었으며, 그 재위 기간은 128년부터 166년까지라고 삼국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 개루왕의 맏아들은 초고 이었다. 개루왕 이후, 왕위는 맏아들 집안이 계승해, 5대 초고왕, 6대 구수왕, 7대 사반왕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7대 사반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곧 폐위되고, 고이가 8대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그런데 이 고이왕(234-286년)은 개루왕의 맏아들인 초고왕 계통이 아니라 개루왕의 둘째 아들 집안사람이었다. 그로부터 백제의 왕위는, 이 둘째 아들 집안 계열인, 9대 책계왕, 10대 분서왕이 계승했다. 304년에 분서왕이 서거했을 때, 직계 왕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모두들 어렸기 때문에, 결국 아무도 왕위를 승계하지 못하고, 개루왕의 맏아들(초고) 계통인, 구수왕 집안의 비류가 신민들의 추대를 받아 11대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다.

이 비류왕이 서거하자, 어찌된 셈인지 왕위는 다시 개루왕의 둘째 아들 계통인 분서왕의 아들 중, 계 왕에게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 12대 계 왕은 즉위한지 3년 만에 죽어버렸고, 시계추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왕위는 또다시 개루왕의 맏아들 계통인 비류왕의 차자 근초고에게 돌아왔다. 즉

三國史記 百濟本紀 第一 肖古王 蓋婁王之子... 百濟本紀 第二 仇首王 或云貴須 肖古王之長子... 古余王 蓋婁王之第二子也 仇首王... 薨長子沙伴嗣位 而幼少不能 爲政 肖古王母弟古余即位... 責稽王 古余王子... 汾西王 責稽王長子 ... 比流王 仇首王第二子... 契王 汾西王之長子也... 近肖古王 比流王第二子也 ... 近仇首王 近肖古王之子 枕流王 近仇首王之元子 ... 辰斯王 近仇首王之仲子 阿莘王 枕流王之元子 ... 曠支王 阿莘之元子 三18, 三29-32

三國史記 百濟本紀 第一 多婁王 十年 北部眞會爲右輔 肖古王 四十九年 命北部眞果領兵一千 襲取靺鞨石門城 百濟本紀 第二 古余王 七年 拜眞忠爲左將 委以內外兵馬事 十三年 魏幽州刺史毋丘儉與樂浪太守劉茂 帶方太守弓遵伐高句麗 王乘虛遣左將眞忠 襲取樂浪邊民 十四年 拜眞忠爲右輔 眞勿爲左將 委以兵馬事 二十八年 拜眞可爲內頭佐平 比流王 三十年 拜眞義爲內臣佐平 三17-19, 三29-31

近肖古王 二年 春正月 祭天地神祇 拜眞淨爲朝廷佐平 淨王后親戚 性狠戾不仁 臨事苛細 恃勢自用 國人疾之 三下32

近仇首王 二年 以王舅眞高道爲內臣佐平 委以政事 三下32

枕流王 近仇首王之元子 母曰阿介夫人 繼父即位 三下32 阿莘王 枕流王之元子 ... 二年 春正月 謁東明廟 又祭天地於南壇 拜眞武爲左將 委兵馬事 武王之親舅 沈毅有大略 時人服之 上45

초고-구수-사반-비류-근초고 등이 개루왕의 맏아들 집안 계통이고, 고이-책계-분서-계 등이 개루왕의 둘째아들 집안 계통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초고를 위시한 소위 “개루왕 맏아들 집안”이라는 것이 실은 “온조” 계통의 왕들이고, 고이를 위시한 소위 “개루왕 둘째아들 집안”이라는 것이 바로 “비류” 계통의 왕들이라고 추정을 하는 사학자들도 있다(이기동, 1996: 132, 143). 하지만 무슨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말들은 아니다.

이제 백제의 진(眞)씨 집안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삼국사기는 북부(北部)의 진씨 일족에 대해 많은 기록을 하고 있다. 온조의 맏아들인 (2대) 다루왕은 37년에 진회를 우보 라는 대신의 지위에 임명했고, 5대 초고왕은 214년에 진과에게 군사 1천명을 거느리고 말갈의 석문성을 공격토록 하여 이를 빼앗았다. 8대 고이왕은, 240년에 진충을 좌장으로 삼아 병마사를 총괄케 했다. 245년 8월, 위나라의 유주 자사 관구검이 낙랑태수 유무, 대방 태수 궁준과 함께 고구려를 공격하자, 고이왕은 그 기회를 이용해 좌장 진충으로 하여금 낙랑의 변방을 쳐 빼앗도록 했다. 247년 2월에는 진충을 좌보로 삼고, 진물을 좌장으로 삼아 병마사를 맡겼다. 261년에는 진가를 내두좌평으로 삼아 재정을 관장하게 했다. 11대 비류왕은 333년에 진의를 내신좌평으로 삼았다.

그런데 삼국사기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백제왕들이 진씨 집안에서 왕후를 맞이한 것 같다. 예컨대 근구수왕(375-384년)은 진고도의 사위였고, 아신왕(392-405년)은 진무의 사위였다. 또 진정이란 사람이 근초고왕(346-375년)의 왕후와 인척 관계인 것을 보면, 근초고왕도 진씨 집안에서 왕후를 맞이했던 것이다. 따라서 적지 않은 수의 진씨 집안 사람들이, 왕과 왕자들의 장인이며 또 외할아버지 집안이 되었을 것이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근초고왕 2년 조에는, 왕후의 친척인 진정(眞淨)이란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즉, 왕이 진정을 등용하여 조정좌평으로 삼았는데, 성질이 사납고 꼬인데다가, 인자하지도 못하여서, 모든 일의 처리가 까다로울

뿐 아니라, 왕후의 친척이라는 위세를 믿고 제 멋대로 하니, 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를 미워하였다는 것이다. 고사기와 일본서기 편찬자들한테 “스사노오”가 밍게 보인 것만큼이나, “진정”이 김부식에게 밍게 보인 것 같다. 바로 이 진정이라는 인물이 내 추리의 출발점이 된다.

고사기 상권 신대 기록에서 신화로 처리된 야마토 왕국의 창건자 니니기는 타카기의 외손자이다.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의하면, 야마토 왕국을 창건하는 과정에서, 니니기의 외조부인 타카기가 (친가 쪽인 아마테라스 보다도) 훨씬 적극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신찬 성씨록은 야마토 왕실의 직계 씨족들을 진인(眞人)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

얼핏 보면, “진인”을, 그저 참된 도를 체득한 도사(道士)라는 표현처럼, 옛날 존칭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야마토 왕국의 시조가 “부여씨”인 백제 왕손인 동시에 진정과 같은 (진씨 집안) 인물의 외손자였으며, 야마토 왕실의 직계 씨족들은, 백제 진씨 집안과의 혈연관계를 강조하기 위해, (외가 쪽의) 진인이라는 명칭을 간직한 것으로 생각한다. 즉, 야마토 왕국 시조(호무다)의 “외가”는 (타카기-니니기 관계처럼) 백제 진씨 집안이며, 이 “외가” 진씨는 건국 과정에서 “친가”인 부여씨 쪽보다 훨씬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가정2]

일본 고대사에서는 소위 텐표(天平) 문화 시대라고 부르는 기간(749-757년)이 있다. 이 시대의 말기에 와서, 야마토 조정은 주요 씨족들의 조상에 대한 기록을 만들기 위해 여러 명의 저명한 학자들을 동원하였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들의 작업은 곧 중단이 되었다. 후에 사가왕의 재위 기간 중에(809-823년) 다시 작업이 재개되어, 815년에 신찬 성씨록이라는 명칭으로 편찬이 완료되었다.

이 성씨록에는, 경기(京畿) 즉 당시의 수도(京)와 야마토, 셋츠, 카하치, 야마시로, 이즈미 등 키나이(畿内) 지역에 거주하는 1,182개의 주요씨족의 조상(出自)들이 수록되어 있다. 제1부에는 천황, 황자의 후손이라는 335개 황족들(皇別)의 조상이 기록되어 있다. 제2부에는 천신과 지신의 후예

天照大神之子... 娶高皇產靈尊女... 生天津彦彦火瓊瓊杵尊 故皇祖高皇產靈尊 特鍾憐愛 以崇養焉 遂欲立皇孫... 以爲葦原中國之主 然彼地多有螢火光神 及蠅聲邪神... 故高皇產靈尊 召集八十諸神 而問之曰 吾欲令撥平葦原中國之邪鬼 當遣誰者宜也 上135 高皇產靈尊 選當遣於葦原中國者 ... 高皇產靈尊 以眞床追衾 覆於皇孫... 使降之 皇孫乃離天磐座... 天降於日向襲之高千穗峯矣 上139-141

新撰姓氏錄序

蓋聞 天孫降襲 西化之時... 胙土命氏 國造縣主始號於斯... 姓氏稍分 况復任那欽風 新羅歸賁爾來... 允恭御宇 萬姓紛紜... 皇極握鏡 國記皆燔... 勝寶季中 特有恩旨 聽許諸蕃 任願賜之 遂使前姓後姓文字斯同 蕃俗和俗氏族相疑 萬方庶民 陳高貴之枝葉 三韓蕃賓稱 日本之神胤 ... 天神地祇之胄 謂之神別 天皇皇子派 謂之皇別 大漢三韓之族 謂之諸蕃... 枝別之宗 特立之祖... 眞人是皇別之上氏也 并集京畿以爲一卷 附皇別首... 抑亦人倫之樞機 國家之隱括也

新撰姓氏錄抄 第一帙

左京皇別

息長真人 出自譽田天皇 謚應神皇子稚濇毛二俣王之後也 山道真人 坂田酒人真人 息長真人同祖 八多真人 出自謚應神皇子稚野毛二俣王也 三國真人 謚繼體皇子椀子王之後也 路真人 出自謚敏達皇子難波王也 守山真人 路真人同祖 難波親王之後也 甘南備真人 飛多真人 英多真人 大宅真人 路真人同祖 大原真人 出自謚敏達孫百濟王也 島根真人 大原真人同祖 百濟親王之後也 豊國真人 山於真人 吉野真人 桑田真人 池上真人 海上真人 大原真人同祖 清原真人 桑田真人同祖 百濟親王之後也 香山真人 出自謚敏達皇子春日王也 登美真人 出自謚用明皇子來目王也 蟪淵真人 出自謚用明皇子殖粟王也 三島真人 出自謚舒明皇子賀陽王也 淡海真人 出自謚天智皇子大友王也 三園真人 出自謚天武皇子淨廣壺磯城親王之後也 笠原真人 三園真人同祖 磯城親王之後也 高階真人 出自謚天武皇子淨廣壺太政大臣高市王也 氷上真人 出自謚天武皇子一品大惣管新田部王也 岡真人 出自謚天武皇子一品贈太政大臣舍人王也

右京皇別

山道真人 息長真人同祖 出自應神皇子稚濇毛二俣親王之後也 息長丹生真人 息長真人同祖 三國真人 謚繼體皇子椀子王之後也 坂田真人 出自謚繼體皇子仲王之後也 多治真人 宣化天皇皇子賀美惠波王之後也 爲名真人 宣化天皇皇子火焰王之後也 春日真人 敏達天皇皇子春日王之後也 高額真人 春日真人同祖 春

라는 신족들(神別)의 조상이, 그리고 제3부에는 중국과 한국 사람의 조상을 가졌다는 번족들(諸藩)의 조상이 기록되어 있다.

성씨록의 서문은, 마히또(真人)가 황별 중에 으뜸가는 왕실 직계 씨족이므로, 수도 지역의 마히또 씨족을 제1권 황별의 첫머리에 수록했다고 말한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텐무 왕은 “아마 노 누나하라 오끼 노 마히또”라고 불렸다. 성씨록 제1권의 바로 첫머리에 실려 있는 4개의 마히또 황족들은 오오진 왕의 후손으로 기록되어 있다. 5번째는 케이타이 왕의 후손, 6번에서 12번까지는 비다쓰 왕의 후손, 13번에서 20번까지의 마히또 황족들은 “백제 왕자”의 후손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12번째 씨족은, 즉 백제 왕자의 후손으로 기록되어 있는 씨족들의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마히또 황족은, 비다쓰 왕의 후손일 뿐 아니라 동시에 백제왕의 자손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6번부터 12번까지의) 비다쓰 왕의 후손은 백제왕의 자손과 동일하다는 말이 된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비다쓰 왕은 케이타이 왕을 계승한 킨메이 왕의 둘째 아들이었으며, 케이타이 왕은 또 오오진 왕의 5세손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첫 번째에서 20번째까지의 모든 마히또 황족들이 백제왕의 자손들이었다고 성씨록이 기록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센쿠와 왕은 케이타이 왕의 둘째 아들, 요오메이 왕은 킨메이 왕의 넷째 아들, 쇼메이 왕은 비다쓰 왕의 손자, 텐지 왕은 쇼메이 왕의 맏아들, 텐무 왕은 텐지 왕의 동생이다. 그런데 21번째부터 44번째까지의 나머지 24개 마히또 황족은, 오오진, 케이타이, 센쿠와, 비다쓰, 요오메이, 쇼메이, 텐지, 텐무 왕들 가운데 어느 하나의 자손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신찬 성씨록 첫머리에 실려 있는 전체 44개 황족들이 모두 진인(真人)인 동시에, 백제왕의 자손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 오오진-케이타이 계통의 핵심적인 일본 황족 전체가 백제 왕족의 후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기록을 근거로 해서, 나는 야마토 왕국의 시조인 호무다의 “외가”는 (니니기-타카기 관계처럼) 백제 진씨 집안이며, (니니기-아마테라스 관계 같은) 그의 “친가”는 부여씨인 백제 왕실이라고 추정을 했다.

(3) 호무다의 출생 년도

다음다음 장(7장)에서 분명하게 알게 되지만, 오오진(호무다)이 왕위에 오른 해는 390년이다. 나는 일본서기에서 등장하는 진무(이하레)와 오오진(호무다)이라는 두개의 존재가 모두 “야마토 왕국의 시조” 한사람을 의미한다고 믿는다. 그런데, 일본서기는 진무가 51세에 “야마토 왕국의 시조”로서 왕위에 올랐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 역산을 해 보면, 야마토 왕국 시조의 출생 년도가 340년이 된다. 내 생각대로 호무다가 야마토 왕국의 시조라면, 호무다의 출생 년도는 340년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가정1.1]

시조 호무다의 즉위 원년이 390년이고, 호무다의 출생 년도를 340년으로 추정을 한다면, 도대체 이 시기에 해당하는 일본서기의 기록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일본서기에 의하면, 호무다는 소위 신공왕후 섭정 원년 바로 전 해에 출생했다. 그런데 일본서기는, 편찬자들이 자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공 왕후라는 허구의 존재가, 마치 (위서 동이전에 나타나는 3세기 중엽의 역사적인 존재인) 왜의 여왕 히미꼬를 의미하는 것처럼 위장을 했다.

위서 동이전에 등장하는 왜의 여왕 히미꼬가 위나라에 처음으로 사신을 보낸 것은 238년이다. 히미꼬가 쿠나국 왕과 싸운 것은 247년이고, 그 후 어느 때인가 죽었다. 266년에 히미꼬의 뒤를 이은 왜의 여왕 이요가 서진 무제에게 조공을 했다는 기록을 끝으로, 413년에 왜가 동진의 안제에게 토산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나타나기 까지, 왜와 관련된 기록은 중국 정사의 어느 곳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역사가들은, 일체의 기록이 없는 이 147년간의 공백 기간이, 그저 상당한 혼란기였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다.

日親王之後也 當麻真人 用明皇子
 磨古王之後也 文室真人 天武皇子
 二品長王之後也 豊野真人 天武皇
 皇皇子淨廣壹高市王之後也

山城國皇別 三國真人 繼體皇子 椀
 子王之後也

大和國皇別 酒人真人 繼體皇子
 兔王之後也

攝津國皇別 爲奈真人 宣化皇子 火
 焰王之後也

神武天皇 七十有六年 春三月 天皇
 崩于橿原宮 時年一百二十七歲 上
 217

三國志 卷三十 魏書 三十 烏丸鮮
 卑東夷傳 第三十 倭 景初二年六月
 倭女王遣大夫難升米等詣郡 求詣天
 子朝獻...正始元年...其八年...倭女
 王卑彌呼與狗奴國男王卑彌弓呼素
 不和...相攻擊...卑彌呼以死 ...

神功皇后 攝政 六十九年...皇太后
 崩於稚櫻宮 時年一百歲 ... 是年也
 太歲己丑 上361

神功皇后 攝政前紀 (仲哀天皇九年
 十二月)...生譽田天皇於筑紫 上341

神功皇后 攝政元年 ... 是年也 大
 歲辛巳 卽爲攝政元年 上349

神功皇后 攝政 三十九年 魏志云
 明帝景初三年六月 倭女王遣大夫難
 斗米等 詣郡 求詣天子朝獻 太守
 鄧夏遣吏將送詣京都也 上351

神功皇后 攝政 四十年 魏志云 正
 始元年 遣建忠校尉梯携等 奉詔書

印綬 詣倭國也 上351

神功皇后 攝政 四十三年 魏志云
正始四年 倭王復遣使大夫伊聲者掖
耶等八人上獻 上353

神功皇后 攝政 六十四年 百濟國貴
須王薨 王子枕流王立爲王 六十五
年 百濟國枕流王薨 王子阿花年少
叔父辰斯奪立爲王 六十六年 是年
晉武帝泰初二年... 倭女王遣重譯貢
獻 上359-361

神功皇后 攝政 五十五年 百濟肖古
王薨 五十六年 百濟王子貴須立爲王
上359-361

神功皇后 攝政 三年 立譽田別皇子
爲皇太子因以都於磐余 上349

일본서기에 의하면 신공왕후가 100살을 살고 269년에 죽었으니, 170년에 출생을 한 셈이다. 또 그녀가 죽은 해가 섭정 69년이라니까, 그녀의 섭정 원년은 201년이 된다. 신공왕후가 그 해 10월에 섭정을 시작했는데, 호무다를 그 바로 전해 12월에 낳았다고 하니, 호무다의 출생 년도는 200년(12월)인 셈이다.

일본서기는 이 신공 왕후라는 존재가 섭정을 했다는 기간 중, 섭정 39년, 40년, 43년 조에, 위서 동이전의 239년, 240년, 243년에 해당하는 기록들을 각각 인용해 놓았다. 일본서기는 또 신공 섭정 66년이라는 특정 연도를 중국의 진 무제 태초(태시) 2년, 즉 서기 266년인 것으로 기록을 했다. 일본서기는, 위서 동이전의 기록을 가지고, 가공의 존재 신공왕후와 역사적 인물 히미코의 일체화 작업을 전개 한 것이다. 즉 히미코의 또 다른 이름인 신공왕후가 201년부터 섭정을 시작했다는 얘기다.

그런데 일본서기는 한걸음 더 나아가 (390년에 왕위에 오른) 호무다가 신공왕후의 아들이라는 구도를 만들었다. 그렇다면 신공왕후가 389년까지 무려 189년간 섭정을 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긴 실제로 일본서기가 수록한 내용을 보면, 신공 왕후라는 가공의 존재는 주로 4세기 중엽을 무대로 활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섭정 65년 조에다가는 백제에서 침류왕이 죽고 어린 왕자 아화의 숙부인 진사가 왕위를 탈취했다고 기록을 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그 해가 바로 (265년이 아니라) 서기 385년이다. 따라서 산술적으로 일관성이 있게 기록을 하려면, 이 내용은 섭정 65년 조에 기록을 하지 말고, 120년을 더해, 섭정 185년 조라는 것을 만들어서 기록을 해야 한다. 즉 침류왕의 서거를 기록한 섭정 65년 조는, 섭정 185년 조가 되어야 했을 것이다.

일본서기는 또 신공왕후 섭정 64년(일본서기가 264년으로 설정한 해)에, 백제 귀수왕(근구수왕)이 죽고 왕자 침류왕이 왕위에 올랐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그 해가 바로 384년이다. 이 경우도 섭정 64년 조에 기록을 하지 말고, 120년을 더해, 섭정 184년 조라는 것을 만들

어 기록을 했어야 한다.

일본서기는 섭정 55년(일본서기가 255년으로 설정한 해)에 백제의 초고왕(근초고왕)이 죽고, 그 다음 해에 왕자 귀수가 왕위에 올랐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근초고왕이 죽은 해가 바로 375년이다. 즉, 섭정 55년이 아니라, (120년을 더해) 섭정 175년이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삼국사기의 년대와 일치시킨다면, 섭정 최종 년도는 섭정 69년이 아니라, 섭정 189년이 될 것이다. 그러면 섭정 189년은 바로 389년이 되고, 호무다가 왕위에 오른 해는 390년이 된다.

일본서기에 나타나는 한반도 관련 기록과 삼국사기의 기록을 비교하면서 연도를 맞추어 보면, 이 시기의 일본서기(한반도 관련) 기록들이 정확하게 120년 끌어 올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유명한 “120년 괴리”라는 것은, 거의 모든 일본 사학자들도 인정을 하고 있다.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편찬자들이 “호무다의 어머니라는” 신공왕후를, 히미꼬와 외형상(즉 산술적)으로라도 좀 정확하게 일치 시키려 했다면, 그녀가 100살에 죽은 것이 아니라 (120살을 더해) 220세에 죽은 것으로 했어야 한다. 신공왕후가 220살까지 살았다면, 그녀의 사망 년도가 269년이 아니라, 389년이 된다. 그러면 바로 다음 해인 390년에 왕위에 오른 “그녀의 아들” 호무다와 (최소한 산술적으로는) 아주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서기에서 461년 조까지 계속되는 기록 년도 상의 엄청난 혼란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섭정기간을 채울만한 사료가 부족해서 그랬는지) 신공왕후가 220세가 아니라 (69년간만 섭정을 하고) 100세에 죽었다고 해 버렸기 때문에, 년도가 명백한 당시의 백제 관련 기록들마저 모두 120년씩 앞으로 당기는 역지가 생긴 것이다. 어차피 믿을 사람은 없겠지만, 그저 외형상으로라도 완전범죄를 하고 싶었다면, 신공왕후가 (189년간 섭정을 하고) 220살에 죽었다고 했어야 할 것이다.

고사기는 아주 용감하게 호무다가 130세에 죽었다고 기록을 했다. 하지만 그래 보아야 호무다의 사망 년도가 329

년(혹은 만으로 계산해서 330년)이 되는 것이다. 일본서기는, 270년(120년을 더하면 390년)에 왕위에 오른 호무다가(만으로) 110년을 살고 310년에 죽었다고 한다. 하지만 신공왕후의 아들이라는 호무다의 수명을 아무리 연장 해 보아야(100살에 죽었다는) 신공왕후 기록 속에 나타나는 120년 괴리를 해소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하긴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편찬자들도, 애당초 너무나 황당한 거짓말을 하려니, 논리적인 일관성을 따지기가 민망했던 것 같다. 당시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조작을 했지만, 후세의 독자들이 아주 쉽게 그 허구적인 측면을 알 수 있도록 일부러 배려를 해 주었다 고도 생각할 수 있다. 즉, 의도적으로, 정확한 기록을 생명으로 하는 사관(史官)을 가장하는 완전범죄를 애당초 포기해 버린 것이다. 또, 후세의 독자가 진실을 추적할 수 있게, 의도적으로 여기 저기 단서를 흘려 놓았던 것이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소위 신공왕후 섭정 원년의 바로 전 해가 호무다의 출생 년도이고, “69년 간”의 섭정을 마치고 죽은 다음 해가 바로 호무다가 왕위에 오른 해라고 한다. 일본서기는, 신공왕후의 섭정 시작 년도를 히미꼬의 기록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위서 동이전의 내용을 가지고 시작했다. 그런데 신공황후의 서거 년도와(바로 그 다음 해라는) 호무다의 즉위 년도와의 연결 작업은 한반도와 관련된 기록을 가지고 시도 했다.

우리가 소위 신공왕후 섭정 66년[386년]이라는 해부터 일본서기의 기록을 거꾸로 읽어 가보면, 이런저런 기록들이 섭정 39년[359년]까지는 꾸준히 이어진다. 이 기간 중에 종잡을 수 없이 소개되는(한반도와 관련된) 기록들은(해당 년도는 엉뚱하지만) 내용 자체는 다분히 실제 역사적 사실들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섭정 39년 조를 마치고는 별안간 섭정 13년으로 26년을 뒤편고, 또 곧바로 섭정 5년으로 8년을 뒤편다.

이(섭정 39년에서 섭정 5년으로) 뒤편는 장소가 바로, 위서 동이전에 나오는 3세기 중반의 왜 여왕 히미꼬라는 존재를 무지막지하게 4세기 무대로 연결시키기 위해, 히

미꼬 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허구의 존재인 신공왕후의 섭정 기간을, 수록 할만한 내용도 없으면서, 어거지로 늘어보려는 작업이 시도된 기간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서기 편찬자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모양을 갖추고 싶어 해도, 이 기간을 메울만한 역사적 사실들을 찾는다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더구나 섭정기간을 (69년이 아니라 120년을 더해) 189년으로 만든다는 것은, 사용 가능한 사료의 양에 비추어 보아, 전혀 불가능 했던 것이다.

다시 한번 요약한다. 오오진(호무다)이 왕위에 오른 해는 390년이다. 나는 진무(이하레)와 오오진(호무다)이 모두 야마토 왕국의 시조 한사람을 의미한다고 추정한다. 일본서기는 진무가 51세에 야마토 왕국의 시조로서 왕위에 올랐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 역산을 해 보면, 야마토 왕국 시조인 호무다의 출생 년도가 340년이 되는 것이다[가정1.1].

340년은 백제의 11대 비류왕(304-344년)이 즉위한 지 37년째가 되는 해 이었고, 신라는 16대 흘해 이사금(310-356년)이 즉위한 지 31년째가 되는 해이었다. 고구려는 16대 고국원왕(331-371년)의 즉위 10년이 되는 해로, 바로 전해에 연(前燕)나라 왕 모용황(慕容皝)이 신성(新城)까지 쳐들어 왔었다. 고국원왕은 340년에 세자를 연왕에게 보내 회유를 했으나, 모용황은 2년 후에 새로 정한 고구려 국도 환도성까지 침입하여 미천왕 능을 파서 시체를 싣고 왕비, 왕모를 포함해 5만여 명을 사로잡아 돌아갔다. 미천왕은 일찍이 313년에 낙랑군을 축출해버린 고구려 15대 왕이다. 340년 당시 백제나 신라는 비교적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고구려는 요동을 병합한 선비족 모용씨의 팽창으로 심각한 시련기에 처해 있었다. 유유럽에서는 콘스탄티노플이 (331년에) 공식적으로 로마제국의 수도가 된지 10년이 지났다.

나 자신, 호무다의 출생 년도를 구태여 추정을 해 본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스스로 반문을 여러 번 해 보았다. 아마 340년이라는 특정 숫자 자체는 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추정 과정에서, 독자들이 당시의 역사적 시대 상황뿐 아니라, “120년 괴리”를 포함한 여러 중요한 관련 기록들의 의미를 자연스

럽게 다시 한번 반추 해 볼 수 있다는 데서, 그 추정 노력의 가치를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4) 호무다의 출생과 성장 환경

爲國之大祓而 ... 請神之命 於是教覺之狀 具如先日 凡此國者 坐汝命御腹之御子 所知國者也 ... 白恐我大神 坐其神腹之御子 何子歟 答詔男子也 爾具請之 今如此言教之大神者 欲知其御名 卽答詔是天照大神之御心者 古230

次大靱和氣命 亦名品陀和氣命 此太子之御名 所以負大靱和氣命者 初所生時 如靱肉生御腕 故著其御名 是以知坐腹中國也 古226

應神天皇 卽位前紀 初天皇在孕而天神地祇授三韓 旣產之 肉生腕上 其形如靱 是肖皇太后爲雄裝之負靱 故稱其名 謂譽田天皇 上古時俗 號靱謂褒武多焉 上363

三國史記 卷第十三 高句麗本紀 第一...有一男兒...自作弓矢射之 百發百中 扶餘俗語 善射爲朱蒙 故以名云 三上260

三國史記 百濟本紀 第二 比流王...及汾西之終 雖有子皆幼得立 是以爲臣民推戴 卽位 三下31

三國史記 百濟本紀 第二 契王 汾西王之長子也 天資剛勇 善騎射 ... 比流王在位四十一年薨 卽位 三下31

고사기에 의하면, 가공의 존재 신공왕후는 호무다를 잉태하고 있을 때, 그 태아가 후에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계시를 “일신” 아마테라스로부터 받았다고 한다. 또 그 아기가 출생했을 때, 그의 팔뚝에는 공사들이 활을 쏠 때 착용하는 가죽 팔찌 모양의 근육이 생겨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호무다가 되었다고 한다. 일본서기는, 태어난 아기의 팔에 굳은살이 박혀 있는 모양이, 마치 신공 왕후가 남장을 하고 가죽 팔찌를 찬 모습과 흡사 했다고 말한다.

일본서기는, 활을 쏠 때 팔을 보호하기 위해 활을 쥐는 왼쪽 팔꿈치에 대는 가죽 팔찌(토모)를 당시 사람들이(上古時俗) 호무다 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호무다가 되었다고 주석을 달았다. 이 기록은 일신의 정기를 받고 태어난 주몽이, 출생 시부터 활을 잘 쏘았다는 애기와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는 부여의 속어(俗語)에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하므로 그와 같이 이름을 지었다고 기록을 했다.

나는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기록을 거듭 읽어보면서, “호무다는 백제 왕실의 일원이었고 진씨 집안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제 나는 한걸음 더 나아가, 호무다가 도대체 백제 왕실의 누구였을까 추정을 해 보려 한다. 내가 여기서 하려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실제 기록을 단순히 “합리적”으로 재편집 한 것이다. 나는 이들 기록을 바탕으로, 가장 사실에 가깝다고 믿어지는 이야기를 해 보려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독자는 이제 곧바로 122쪽으로 간 다음, [] 속의 글들을 무시해 버리고 계속 읽어 주기를 바란다.

하긴 나로서는 이제부터의 10여 쪽이, 나 자신의 상상력을 가장 크게 동원한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독자들은 이

10여 쪽에서 [] 사이에 든 글들을 집중적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 이후의 분석에서는 상상력의 역할을 최소화했고, 제2부에 가서는 거의 모든 것을 분명한 기록에만 의존했다.

삼국사기는 진정을 근초고왕 왕후의 친척이라고만 기록을 했다. 아마도 근초고왕의 처남쯤 되는 사이가 아닐까 추측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이 진정과 타카기의 존재를 동일시한다는 접근방법을 택한다[가정2].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의하면, 야마토 왕국 시조의 외가 쪽인 타카기가 친가 쪽인 아마테라스 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나는 동일한 구도로, 백제 왕실의 외가 쪽인 진씨가 친가 쪽인 부여씨 보다 훨씬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았다.

진정은, 왕위가 (개루왕의 둘째아들 집안인) 고이-책계-분서-계 계통으로 이어질 것을 예측하고, 일찌감치 [330년대 후반?] 자신의 외동딸을 당시 왕위에 오르지도 않았던 계왕(344-346년)의 아들에게 출가 시켰다[가정2.1].

삼국사기에 의하면, 계왕은 성품이 강직하고 용감하며, 말을 타고 활쏘기를 잘 했다 한다. [호무다의 양친에 대한 일본서기의 기록에 비추어 보면, 계왕의 아들은 키가 크고 용모가 단정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진정의 딸은 어려서부터 마음가짐이 깨끗하고 매사에 생각하는 바가 슬기로웠으며, 자라면서 그 용모가 엄숙하게 빛나면서도 아름다웠다고 한다. 하지만 부친인 진정의 피를 받아 아주 굳센 면이 있었다. 남장을 하고, 왼 팔에 가죽 활팔씨를 동여매고, 활쏘기도 즐겼던 것 같다. 진정은 이 외동딸이 아주 특이 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계왕은 분서왕(298-304년)의 장자였다. 10대 분서왕이 돌아갔을 때, 계왕은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왕위에 오르지 못했다. 좀 의외였지만 (개루왕의 맏아들 계통인) 구수왕 집안의 비류가 신민들의 추대를 받아, 11대 왕이 되었다는 것이다.

마침내 비류왕(304-344년)이 재위 41년 만에 돌아가자, (개루왕의 둘째아들 집안사람인) 계왕은 아주 늙은 나이에 즉위를 하게 된 것이다. 애초에 왕위계승의 기회를 한번 놓치자, 어언 간에 4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셈이다. 하

仲哀天皇 即位前紀 ... 天皇容姿端正 身長十尺 上321

神功皇后 攝政前紀 ... 足仲彥天皇二年 立爲皇后 幼而聰明叡智 貌容壯麗 父王異焉 上331

神武天皇 即位前紀 神日本磐余彥天皇...母曰玉依姬 海童之少女也... 天皇生而明達 意確如也 上189

應神天皇 即位前紀 譽田天皇 ... 幼而聰達 玄監深遠 動容進止 聖表有異焉 皇太后攝政之三年 立爲皇太子 初天皇在孕而 天地祇授三韓 既產之 肉生腕上 其形如鞞 是肖皇太后爲雄裝之負鞞 上古時俗號鞞謂褒武多焉 上363

三國史記 百濟本紀 第二 近肖古王
比流王第二子也 體貌奇偉 有遠識
二年 祭天地神祇 拜眞淨爲朝廷佐
平 淨王后親戚 性狼戾不仁 臨事苛
細 恃勢自用 國人疾之 二十一年
遣使聘新羅 ... 二十四年 秋九月
高句麗王斯由帥步騎二萬 來屯雉壤
分兵侵奪民戶 王遣太子以兵徑至雉
壤 急擊破之 獲五千餘級 其虜獲分
賜將士 二十六年 高句麗舉兵來 王
聞之伏兵於湏河上 俟其至急擊之
高句麗兵敗北 冬 王與太子帥精兵
三萬 侵高句麗攻平壤城 麗王斯由
力戰拒之 中流矢死 王引軍退 移都
漢山 ... 近仇首王 一云 諱須 近肖
古王之子 ... 二年 以王舅眞高道爲
內臣佐平 委以政事 三31-32

應神天皇 卽位前紀 譽田天皇 ...
幼而聰達 玄監深遠 動容進止 聖表
有異焉 皇太后攝政之三年 立爲皇
太子 初天皇在孕而 天神地祇授三
韓 旣產之 肉生腕上 其形如鞞 是
肖皇太后爲雄裝之負鞞 上古時俗
號鞞謂褻武多焉 上363

神武天皇 卽位前紀 神日本磐余彥
天皇...曰...昔我天神 高皇產靈尊
大日靈尊 舉此豐葦原瑞穗國 而授
我天祖彥火瓊瓊杵尊 上189

五瀨命 於御手負登美毘古之痛矢串
故爾詔 吾者爲日神之御子 向日而
戰不良 古150

本牟多[品陀]能 比[日]能美古[御
子] 意富佐邪岐[大雀] 古246

지만 그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마침내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는 사실자체가 기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튼 비류왕 재위기간 중에 계왕의 왕위계승을 예측한 진정의 안목은 탁월했다.]

(개루왕의 둘째아들 집안사람인) 계왕의 아들과 진정의 딸 사이에는 이쓰세(五瀨)와 호무다(品陀)라는 두 아들이 있었다[가정2.2]. 즉 호무다의 친가는 부여씨인 계왕이고, 외가는 진씨 집안의 진정이라는 것이다. 니니기의 친가 쪽이 아마테라스이고, 외가 쪽이 타카기라는 구도와 같은 것이다. 독자들 중에는 내가 왜 구태여 “호무다의 친조부가 계왕이고, 외조부가 진정”이라는 구도를 만들어, 학문적인 연구를 역사 소설 같이 보이게 만들고 있는가 의아하게 생각할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다. 하긴, 그저 “호무다가 백제 왕실의 일원이고 진씨 집안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가볍게 추측을 하고 그만 두는 것이 덜 부담스러운 접근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독자들이 나와 함께 좀더 구체적인 구도를 생각해 보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었던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이해를 깊이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 같은 시도(*mental exercise*)를 해 보게 되었다.

(5) 신천지 개척의 실마리

삼국사기에 의하면, 진고도 라는 사람은 근구수왕의 장인이다. 진씨 집안의 진고도는 (개루왕의 맏아들 집안 계통이며 비류왕의 차자인) 근초고왕의 아들 수(須)를 사위로 만들었던 것이다. [진정의 사위가 된 계왕의 아들과, 진고도의 사위가 된 근초고왕의 아들 “수”는, 동갑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어찌되었든 간에, 계왕이 늙은 나이에 즉위한지 3년 만에 죽어버리자, 그의 아들은 왕위를 계승하지 못했다. 오히려 (개루왕의 맏아들 집안 계통인) 근초고가, 장년의 나이로, 왕위를 계승했던 것이다(346-375년).

삼국사기에 의하면, 근초고왕은 기골이 장대하고 위풍이 있으며, 먼 장래를 내다보는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 [계

왕의 아들도 당시에 그렇게 나이가 어린것은 아니었지만, “수”의 부친인 근초고에 비하면, 아직 세상 경험이 부족하고 얌전한 젊은이에 불과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보면, 왕의 장인이 되어 보겠다는 진정한 꿈은 허사가 된 것이었다.] 근초고의 아들인 “수”를 사위로 만든 진고도가 제대로 짝은 것이었다. [동시에, 계왕의 아들을 사위로 삼은 진정은 헛 짝은 꼴이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근초고왕의 부인이 진정한 누이동생이란 사실이었다.

근초고는 왕위에 오른 다음해(347년), [처남인] 진정을 조정좌평으로 삼았다. 진정은 [왕의 처남으로서] 조정좌평 지위에 오르자, 만사를 제멋대로 처리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온 나라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진정이 민심을 잃는 것을 보자, 진고도는 여러 사람들을 은밀히 설득해서, 자기 사위 수를 태자로 확정시킬 수 있었다. 내세운 명분은, 수가 어려서부터 무예가 출중하고 용감해서, 사방의 적국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백제를 영도 해 가는데 가장 적합한 임금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계왕의 아들이 아직 건재 하다는 사실을 감안해, 왕위계승의 불확실성을 일찌감치 제거시켜 버렸던 것이다.]

왕위는 이제 진고도의 사위인 수가 계승한다는 것이 확정되었다. 삼국사기나 일본서기를 보면, 근초고왕의 아들 수(須)는, 일찌감치 아주 분명하게 “태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수많은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을 세운다. 여느 다른 왕자들의 경우와는 크게 다른 아주 특이한 사례였다.

일본서기 기록을 보면, 호무다는 어렸을 때부터, 무척 명석하고 생각이 깊었으며, 의지력이 강하고, 몸가짐과 거동이 법도에 맞아, 성스러운 임금님이 지녀야 할 기품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또 조부인 계왕을 닮아 용감하며, 말을 타고 활쏘기를 잘 했다. 당시 이쁘세 와 호무다는 모두 건강하고 총명한 청소년들이었지만, 애당초 그들보다 한 세대 위인 수(須)처럼, 실전을 통해 그 능력을 검증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었다.]

[진정은 (자신의 사위인) 계왕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

於是大后歸神 言教覺詔者 西方有國 金銀爲本 目之炎耀 種種珍寶 多在其國 吾今歸賜其國...凡此國者 坐汝命御腹之御子 所知國者也 ... 坐其神腹之御子 何子歟 答詔男子也 爾具請之 今如此言教之大神者 欲之其御名 卽答詔 是天照大神之 御心者...浮大海以可度 古 228- 230

神武天皇 卽位前紀 ... 而遼邈之地 猶未霑於王澤 遂使邑有君 村有長 各自分疆 用相凌躐 上189

邇藝速日命 娶登美毘古之妹 登美夜毘賣 生子 此者物部連 ... 祖也 古160

時長髓彥 乃遣行人 言於天皇曰 嘗有天神之子 乘天磐船 自天降止 號曰櫛玉饒速日命 饒速日 此云備藝波椰卑 是娶吾妹 ... 故吾以饒速日命 爲君而奉焉 上209

할 줄 알았는데, 뜻밖에 근초고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어 크게 실망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덕한 소치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신의 사위는 물론이고 외손자들마저, 아무리 기다려 보아야 왕위를 계승 해볼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근초고왕의 아들 수가 태자로 확정된 것이다. 한동안 자신의 사위와 외손자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심사숙고 하던 진정은, 비류와 온조의 사례에 비추어, 신천지 개척을 생각해 보게끔 되었다. 사태의 진전은 발상의 전환을 불러온 것이다.]

[일찍이 계왕의 아들에게 시집을 간 진정의 딸은, 호무다(오오진)를 잉태하여 뱃속에 가지고 있을 때부터, 그 태아가 일신 해모수의 직계 후손이며, 후에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님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고사기의 기록에 비추어 보면, 그녀는 상당히 특이한 태몽을 꾸는 것 같다. 즉, 꿈속에 신이 나타나, 바다건너에 진귀한 금은보화가 가득 찬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태아에게 복속시켜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녀가 신에게 태아가 아들인가 딸인가 묻자, 신은 아들이라고 대답을 했고, 또 그녀의 뱃속에 있는 왕자가 바다를 건너가 그 금은보화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가 이러한 말씀을 해 주시는 신의 이름이 과연 누구이신가 물으니, 해의 신이라고 대답을 해 주었다.]

고사기는 상권 신대에서, 타카기의 외손자를 니니기라 했다. 나는 타카기를 진정이라고 추정하고, 또 동시에 니니기-진무-오오진을 모두 호무다 라는 동일인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나는, 니니기를 호무다(시호 오오진)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호무다를 진정(즉 타카기)의 외손자로 간주한다. 나는 이하레(진무) 역시 호무다 라고 부르는 것이다.

일찍이 계왕의 집안을 모시던 물부(物部, 北部?)의 요속일 이라는 사람은, 뜻밖에도 비류왕의 아들인 근초고가 왕위를 계승하자, 크게 실망을 한 나머지, 일족을 거느리고 신천지를 개척 할 생각으로 남쪽을 향해 떠났다[가정2.3].

[요속일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보니, 서쪽으로는 마한 부락국가들이 가득하고, 동쪽으로는 멀리로 신라가, 또 가깝게는 가야 부락국가들이 포진하고 있었다. 요속일은 계속

남행 끝에 한반도 동남단 임나 해안까지 도달했다. 그곳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바다 멀리 아련하게 보이는 쓰시마 섬을 지나 큐우슈우로 가면 신천지가 있을 법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 건너 가보니, 수백 년 전부터 쌀농사를 짓고 있는 토착 주민으로 그득해, 밭을 디딜 틈도 없었다.]

[신천지 개척 노력은, 요속일을 혼슈우의 야마토 평야에까지 도달하게 했다. 이곳은 당시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았기 때문에, 요속일은 마침내 정착을 할 수 있었다.]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신대 편에서는, 정복자들이 “하늘나라”에서 큐우슈우로 우선 내려 온 다음, 혼슈우의 야마토 지역으로 진출을 한다. 내 이야기에서는, 정복자들이 “백제”에서 큐우슈우로 우선 건너간 다음, 야마토 땅으로 진출을 하는 것이다.

[360년경 요속일은 진정에게 사람을 보내], 일본열도는 아직도 임금님이라는 존재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모든 부락들은 제각기 읍장이나 촌장을 우두머리로 하여 서로 싸우고 있다는 얘기를 전했다. 더불어, 자신은 야마토 지역의 토착 부족장의 누이동생을 처로 맞아들이고, 그 토착 세력의 힘을 빌어 신천지에 정착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을 전했다. [요속일이라는 이름도 이제는 그쪽 식으로 니기하야히 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말도 했다. 당시 진정은 이 얘기를 귓등으로 듣고, 잊어 버렸다. 그러나 이제 새삼 그 얘기가 생각이 났고, 사위와 외손자들을 위해 야마토라는 신천지 개척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내 생각을 이제 간단히 요약 해 본다. 기원전 300년 경부터 기원 후 300년 경까지, 일본열도로 향한 삼한 사람들(주로 가야 사람들)의 이주는 지속적이지만 비교적 소규모로 진행이 되었던 것 같다. 이들 가야 사람들은 아이누, 말라요-폴리네시아 선주민들과 어울려 야요이 시대 600년을 전개한다. 그러던 것이, 4세기에 들어오자 비교적 큰 규모로 가야 사람들이 건너오기 시작하여, 야요이 시대와 현저한 차이가 나는, 소위 전기 고분시대(300-375년)를 전개하였다. 급기야 4세기 말에는, 백제 사람들에 의한 정복과 백제 사람들의

倭之青垣東山 古108

仲哀天皇 八年九月 ... 愈茲國而有
寶國 譬如處女之瞭 有向津國 瞭
此云麻用弭枳 眼炎之金銀彩色 多
在其國 上327

神武天皇 卽位前紀...抑又聞於鹽土
老翁曰 東有美地 青山四周 其中亦
有乘天磐船而飛降者 余謂 彼地 必
當足以恢弘大業...蓋六合之中心乎
厥飛降者 謂是饒速日歟 何不就而
都之乎 諸皇子對曰 理實灼然 我亦
恒以爲念 宜早行之 上189-191

神功皇后 攝政四十六年 卓淳王末
錦早岐 ...曰 甲子年七月中 百濟人
久氏 彌州流 莫古三人 到於我土曰
百濟王 聞東方有日本貴國 而遣臣
等 令朝其貴國 故求道路 以至於斯
土 若能教臣等 令通道路 則我王必
深德君王 時謂久氏等曰 本聞東有
貴國 然未曾有通 不知其道 唯海遠
浪嶮 則乘大船 僅可得通 若雖有路
津 何以得達耶 於是 久氏等曰 然
卽當今不得通也 不若 更環之備船
舶 以後通矣 上353

대규모 이주가 단행되어, 후기 고분시대로 급변하게 된다. 에가미가 말하는, 고고학적인 단절 (*archeological break*)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363년 가을 어느 날, 진정은 사위와 두 명의 외손자인 이쓰세 와 호무다 에게 신천지 정복에 관한 자신의 계획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바닷가의 노인들로부터, 동쪽으로 가면 사방이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땅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바다 건너편에서 이쪽 포구를 바라보고 있는 그곳은, 마치 처녀의 눈썹 모양, 온갖 금은 보화로 눈이 부시게 빛나고 있다 한다. 뿐만 아니라, 그 곳에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로부터 바위 배를 타고 건너간 사람이 있다. 나는 그 땅이야말로 의심할 것도 없이, 큰일을 도모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건너간 그 사람이 바로 요속일 이다. 너희들이 이제 그 곳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아직도 비교적 어린 나이였지만, 이쓰세와 호무다는 씩씩하게 “신천지를 개척한다는 생각은 늘 우리들 마음속에도 있었습니다. 하루속히 그 곳으로 가야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364년에] 진정은 북부의 구저, 미주류, 막고 등 세 사람으로 하여금 신천지로 가는 경로를 정확히 알아 오게 했다[가정2.4]. 이들은 지금의 문경 새재를 넘어, 낙동강 상류의 탁순국에 도착했다. 그들은 탁순 왕에게, 남동쪽 해상에 있는 왜를 찾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면 백제왕이 크게 사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탁순왕은 구저 일행에게, “나도 바다건너 남동쪽에 귀(貴)한 나라가 있다는 말을 들어 왔소 만, 우리는 아직 그 나라와 직접적인 왕래가 없기 때문에, 찾아가는 길을 정확히 모르고 있소. 아무튼 우리와 그 나라 사이는 험한 파도가 치는 넓은 바다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큰 배를 가지고도 건너가기가 힘들 것이요. 그러니, 설령 그곳으로 건너가는 나루터가 있다고 한들, 배도 준비를 안하고 어떻게 갈 작정이요?”

이 말에 구저 일행은 대답 했다: “그렇다면 당분간은 왜국을 찾아가는 방법이 없겠습니다. 돌아가서 선박을 확보

할 방도를 마련 한 다음, 차후에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내가 366년으로 추정하는 신공황후 섭정 46년 (일본서기가 246년으로 설정한 해) 조에, 탁순왕이 두 해 전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이들 백제 사람들에게 말을 해주는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신공황후 섭정 44년부터 52년에 해당하는 기간 [364-372년]에는, 백제와 가야 연맹국들 사이의 빈번한 왕래와, 주변지역을 상대로 한 전투 기록들이 나타난다. 내 생각에는 이들 기록이 모두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인데, 일본서기 편찬자들이 그만 가공의 인물인 신공왕후와 관련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읽어 가지고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삼국사기를 본다. [근초고왕은 366년] 가을 7월에 웅천에 요새를 만들었다. 이를 보고 마한 왕이 사신을 보내 책망 했다: “(온조)왕이 처음에 강을 건너왔을 때, 발을 붙일 곳이 없었으므로, 우리 선왕께서 동북쪽의 사방 100리 나 되는 땅을 갈라 주어 정착하게 했으니, 대접이 후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마땅히 보답을 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제 자리가 잡히고 백성이 모여들어 대적할 자가 없다 생각하고, 성채를 크게 쌓고, 우리의 강토를 침범하니, 이게 무슨 의리가 있다는 사람들이 할 짓인가?”

[367년] 봄 2월. 백제 왕궁의 우물물이 갑자기 넘쳤고, 한성의 인가에서 말이 소를 낳았는데 머리 하나에 몸뚱이가 들어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길흉을 점치는 일관이 말했다: “우물물이 갑자기 넘친 것은 대왕[근초고왕]이 크게 일어날 징조요, 소머리 하나에 몸뚱이가 들인 것은 대왕이 이웃나라를 합병할 징조입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드디어 마한을 병합할 뜻을 갖게 되었다.

[368년] 가을 7월. [근초고]왕이 신하들에게 말 했다: “마한이 점차 약해지고 상하의 인심이 이반 되니, 그 형세가 능히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만일 마한이 남에게 병합된다면 우리한테는 마치 입술이 없어 이가 시리다는 격이 될 것이니, 그때 가서 후회한들 무엇 하랴. 먼저 빼앗아 후환을 면하는 것이 상책이다.”

5. 야마토 왕국의 시조 호무다

三國史記 百濟本紀 第一 百濟始祖 溫祚王 二十四年 秋七月 王作熊川 柵 馬韓王遣使責讓曰 王初渡河 無所容足 吾割東北一百里之地安之 仲哀天皇 九年春二月 天皇 忽有痛身 而明日崩 上329 其待王不爲不厚 宜思有以報之 今以國完民聚 謂莫與我敵 大設城池 侵犯我封疆 其如義何 王慙壞其柵 二十五年 春二月 王宮井水暴溢 漢城人家馬生牛 一首二身 日者曰 井水暴溢者 大王勃興之兆也 牛 一首二身美 大王并鄰國地應也 王聞之喜 遂有并吞辰馬之心 二十六年 秋七月 王曰 馬韓漸弱 上下離心 其勞不能久 儻爲他所并 則唇亡齒寒 悔不可及 不如先人而取之 以免後難 冬十月 王出師陽言田獵 潛襲馬韓 遂并其民邑 唯圓山 錦峴二城 固守不下 二十七年 夏四月 二城降 移其民於漢山之北 馬韓遂滅 三16

景行 二年 春三月 日本武尊 幼有雄略之氣 及壯容貌魁偉 身長一丈 力能扛鼎焉 上283

仲哀天皇 九年春二月 天皇 忽有痛身 而明日崩 上329

이 기록은 백제본기의 온조왕 26년조(A.D. 8년 7월)에 나타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사학자들은, 지금 내가 말하는 것처럼 백제가 (즉 근초고왕이), 삼국사기에 기록된 때로부터 정확히 360년 후인, 368년에 마한정복을 도모했던 것으로 추정한다.

[368년 초겨울, 진정은 근초고왕, 태자 수, 그리고 진고도 에게, 자기 외손자들로 하여금 왜로 건너가 신천지를 개척하도록 할 계획을 털어놓았다. 이쁘세도 그랬지만, 특히 호무다는 자라면서 대장부의 기개가 넘쳤을 뿐 아니라, 육척 큰 키에 무쇠 솔을 들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장사였다. 그런데 (이쁘세 와 호무다의 부친인) 진정의 사위는,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하더니, 바로 그 다음 날 홀연 병사하고 말았다.]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신대 기록에서는, 타카기가 애초에는 자기 사위를 신천지로 내려 보낼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마침 외손자인 니니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를 대신 내려 보냈다고 한다. 또, 일본서기에서는, 신공왕후가 호무다를 배속에 품고 큐우슈우로 건너가기 직전에, 신공의 남편이며 “호무다의 부친”이라는 츠우아이가 돌연 사망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

[근초고왕은 진정의 생각에 찬성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다짐했다.] 근초고왕은 진정에게, 다음해에 마한정벌에 나설 계획이므로, 진정의 외손자들 일행도 함께 가서 마한정벌을 우선 도와주고, 마한이 평정되는 대로 왜국으로 건너가는 것이 어떠할까 물었다[가정2.5].

[진정은 자신의 명을 받아, 몇 년 전부터 가야연맹 국가들을 탐사하면서, 왜로 가는 길을 확인하는 작업을 해온 구저 일행이, 마한정벌의 선봉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본다. 369년 가을 9월에 고구려 고국원왕은, 보병과 기병 2만을 거느리고 내려와서 (대방 고지인) 치양에 주둔하면서, 군사를 나누어 민가를 침탈했다. 그러자 근초고왕은 “태자” 수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이들을 공격하게 했다. 태자는 곧장 치양에 달려가서 고구려

군을 깨뜨리고 5천여 명을 사로잡아 왔는데, 근초고왕은 이 포로들을 장사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삼국사기가 특별히 “태자” 라고 밝히면서 “수” 가 세운 무공을 기록한 첫 번째 사례이다. 이 기록을 보면 당시 백제는 이미 대방 고지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해 11월, 근초고왕은 한강 남쪽에 대규모로 군대를 정열 시켜놓고 검열을 했는데, 깃발은 모두 (중국 황제처럼) 황색을 사용했다. 남쪽으로 향한 대규모의 군대 이동을 예고하는 것이다.

(6) 신천지를 향하여

[369년, 진정의 외손자 이쁘세 와 호무다는], 장군으로 임명된 황야와 녹아를 거느리고, 구저 일행과 함께 탁순으로 갔다. [출발 전, 모친은 돌아가신 계 왕한테서 받아두었던 곡옥 과 거울 과 검을 두 아들에게 주었다. 어머니는 특히 호무다의 손에 그 귀중한 거울을 쥐어 주면서, “이 거울에는 나의 혼이 들어 있으니, 너는 이 거울을 보기를 마치 나를 보는 것으로 생각하여 받들어 모시고, 잠자리나 거실을 막론하고 항상 함께 지니고 다니면서, 부정한 것들을 물리치는 거울로 삼거라” 고 당부했다. 모친인 진정의 딸은, 남편인 계왕의 아들이 일찍 병사한 것에 큰 충격을 받았으나, 이제 두 아들을 보내, 신이 계시해 준 바로 그 금은보화의 나라를 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탁순에 도착한 [이쁘세 와 호무다] 일행은 곧바로 마한을 공격 하려했다. 그러자 탁순왕이 말 했다: “당신 네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군대는 너무나 그 수가 적은 것 같다. 그 정도를 가지고는 마한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사백과 개로를 보내 증원 군을 요청했다. 이에 [근초고왕은 북부의] 목라근자 와 사사노께에게 정병을 주어, 즉각 사백과 개로와 함께 탁순으로 가게 했다. 이들은 모두 탁순에 집결한 다음, 마한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병력을 서쪽으로 이동시켜 고해진에 도착한 다음, 드디어는 마한왕 침미다례를 죽여 버릴 수 있었다.

三國史記 百濟本紀 第二 近肖古王比流王第二子也 ... 二十四年 秋九月 高句麗王斯由帥步騎二萬 來屯雉壤 分兵侵奪民戶 王遣太子以兵徑至雉壤 急擊破之 獲五千餘級 其虜獲分賜將士 冬十一月 大閱於漢水南 旗幟皆用黃 二十六年 高句麗舉兵來 王聞之伏兵於浪河上 俟其至急擊之 高句麗兵敗北 冬 王與太子帥精兵三萬 侵高句麗攻平壤城 麗王斯由力戰拒之 中流矢死 王引軍退 移都漢山 ... 近仇首王 一云諱須 近肖古王之子 ... 二年 以王舅眞高道爲內臣佐平 委以政事 三下31-32

爾天照大御神 高木神之命以 ... 於是副賜其遠岐斯 此三字以音 八尺勾瓊鏡 及草那藝劔 ... 而詔者 此之鏡者 專爲我御魂而 如拜吾前 伊都岐奉 古126

是時 天照大神 手持寶鏡 授天忍穗耳尊 而祝之曰 吾兒視此寶鏡 當猶視吾 可與同床共殿同爲齋鏡 上153

神功皇后 攝政前紀 ... 時皇后傷天皇不從神教而早崩 以爲 知所崇之神 欲求財寶國 上331

神功皇后 攝政四十九年 以荒田別鹿我別爲將軍 則與久臣等 共勒兵而度之 至卓淳國 將襲新羅 時或曰 兵衆少之 不可破新羅 更復 奉上沙白 蓋盧 請增軍士 卽命木羅斤資沙沙奴跪 是二人 不知其姓人也 但木羅斤資者 百濟將也 領精兵 與沙白 蓋盧共遣之 俱集于卓淳 上355

神功皇后 攝政四十九年 擊新羅而

破之 因以 平定比自悤 南加羅 喙
國 安羅 多羅 卓淳 加羅 七國 仍
移兵 西廻至 古奚津 屠南蠻 忱彌多
禮 以賜百濟 於是其王肖古及王子
貴須 亦領軍來會 時此利 辟中 布
彌支 半古 四邑 自然降服 是以 百
濟王父子及荒田別 木羅斤資等 共
會意流村 今云 州流須祇 相見欣感
厚禮送遣之 唯千熊長彥與百濟王
至于百濟國 登辟支山盟之 復登古
沙山 共居磐石上 時百濟王盟之
曰 ... 自今以後 千秋萬歲 無絕無
窮 常稱西蕃 春秋朝貢 ... 厚加禮
遇 ... 而送之 上357

얼마 안 있어 근초고왕은 태자 수와 함께 군사를 이끌고 와서, 호무다 일행과 합류했다. 이들 군대의 진로에 위치했던 비리, 벽중, 포지미, 반고 등 4개 마을은 자연스레 항복을 했다. "근초고왕 부자"는 의류라는 마을에서, [이쁘세, 호무다], 황전, 목라근자 일행과 회동했다. 왕은 마한정벌 과정에서 이들 선봉대가 세운 공적을 치하했다.

삼국사기를 보면, 그 다음다음 해에도 근초고왕은 “태자와 더불어” 정병 3만 명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한다. 모든 전장 터에서, “태자” 근구수의 역할이 막중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삼국사기는 마한이 백제 손에 완전히 정복된 것이, 지금 내가 추정하는 연도(369년)로부터 정확히 360년 전인, A.D. 9년에 발생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

근초고왕은 [이쁘세, 호무다] 일행을 데리고 고사산에 올라, 천추만세에 걸쳐 변치 않는 우정을 약속했다. [근초고왕 부자는, 가야 지역을 거쳐 배를 타고 왜로 향해 떠나는 이들 원정군에 축복을 내리며 작별을 고했다.]

일본서기는 이 내용들을 신공 섭정 49년 조에 기록을 해 놓고, 그 해가 서기 249년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서기에 나타나는 당시 백제관련 기록들이 공유하는 “120년 괴리”를 조정 해 놓으면, 그 해당 년도가 바로 369년이 되고, “근초고 왕과 태자 수”가 활약하고 있는 삼국사기의 기록들과도 일관성이 확보된다. 백제의 마한합병이 369년에 이루어 졌다는 것은 일찍이 이병도가 추정을 한 것이다(삼국사기 하, 1983: 34, 각주 20).

그로부터 6년 후(375년), 근초고왕이 서거하자 태자 수가 왕위에 올라 근구수왕이 된다. 그 이후로는, 백제 왕실의 왕위 승계는, 더 이상 개루왕의 맏아들 집안과 둘째아들 집안 사이를 오락가락 하지 않고, 초고-구수-사반-비류-근초고 등으로 이어오는 맏아들 집안에 정착된다. 이 현상을, 백제의 왕위가 온조 계통과 비류 계통을 오락가락 하다가, 마침내는 온조 계통으로 정착한다는 식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이기동 1996: 132, 143) 이 역시 무슨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말은 아니다.

[고이-책계-분서-계 등으로 이어오던 개루왕의 둘

째 아들 집안 계통인 (계왕의 손자) 호무다는 이제 바다 건너 야마토 땅에 새로운 왕국을 세우려고 장도에 오르는 것이다. 백제 왕실에서, 왕위가 개루왕의 맏아들 집안과 둘째 아들 집안 사이를 오락가락 할 요인이 이제 원천적으로 소멸되는 것이다.]

(7) 대륙과 섬나라: 일본과 영국

섬나라 일본과 동북아시아 대륙과의 관계는, 섬나라 영국과 유럽 대륙과의 관계에 비교를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맑게 개인 날이면 한반도의 동쪽 남단에서 일본열도의 끝자락인 대마도(쓰시마)를 육안으로 볼 수 있다. 잉글랜드도 서부 프랑스 해안에서 육안으로 볼 수가 있다. 인간의 보편적 본성을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을 그냥 쳐다만 보고 그 만두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주 먼 옛날부터, 일본열도의 혼슈우는 주로 아이누 사람들이, 또 큐우슈우 섬은 주로 말라요-폴리네시아계통 사람들이 정착해 살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큐우슈우의 북부 평야는, 한반도로부터 변한(가야) 사람들이 오랜 기간을 두고 소규모로 계속 배를 타고 건너 와서, 말라요-폴리네시아 선주민을 비집고 들어와 정착을 하게 되었던 것 같다.

브리티쉬 섬들도, 유럽대륙으로부터 오랜 기간을 두고 소규모로 이주해 온 다양한 종족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러다가 기원전 2세기경에, 중부 유럽에 본거지를 두었던 인도-유우러피언의 전위대라 할 수 있는 켈트족이 몰려와서, 잉글랜드의 대부분을 점령 해 버렸다. B.C. 55년에 줄리어스 쉐이저가 잉글랜드를 침공했을 때, 그 로마 군대와 싸운 사람들이 바로 켈트족이었다. A.D. 43년,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대규모의 군단을 동원해 잉글랜드 전체를 식민지로 만들었다. 하지만 아이어랜드, 웨일스, 코온월, 스캇트랜드 고원지대는 로마인에게 쫓겨난 켈트족의 지배 하에 있었다. 로마 황제 하드리아(117-138년)은 잉글랜드의 북쪽 경계를 지키기 위해 성벽을 쌓도록 명했다. 드디어 136년에,

118 킬로미터에 달하는 하드리안 장성이 완성되었다.

395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사망하자 두 아들이 로마제국을 동서로 분할해서 통치하기 시작했다. 410년, 저어먼 야만인들의 끊임없는 침략으로 쇠잔해진 서로마제국은 잉글랜드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단을 철수시켰다. 5세기 후반, 라인강 하류와 덴마크 사이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던 앵글과 색슨 족들은, 자체 방어력을 상실한 잉글랜드를 정복하고 로마 문화를 일소해 버렸다. 이때 로마 화 된 켈트족 지도자 아아서 왕이, 앵글로-색슨 야만인들로부터 기독교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했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5세기 유유럽 대륙은, 아틸라(404-453년)가 이끄는 훈족이 휩쓸고 다니는 통에, 저어먼 계통을 위시한 온갖 종족들이 연쇄적으로 생판 남의 땅으로 자의반 타의반 이주를 하게 된 시대였다. 이 시기를 유유럽 대륙의 민족대이동 시대라고 부른다.

잉글랜드의 새 주인이 된 앵글로-색슨 족은, 조직화된 중앙정부도 없이, 여러 촌락에 흩어져 살았다. 이들은 스캔디내비안 바이킹들에게 끊임없이 약탈을 당했다.

Chapter 6 begins at 125.